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90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3년 5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의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2023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관련 법령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추가경정예산 개요

- 추경예산(증액) : 7,329,721천원
 - 총 출연금액 : 30,547,029천원(기 출연금 23,217,308천원)
- 출연 필요성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경영혁신 및 기관운영 정상화 지원

라. 기관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에스플렉스센터)
- 규모 : 22,155㎡(약 6,714평)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규모 및 현황

- 2023년도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 출연금은 232억 1천 7백만원이며,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6%에 해당하는 73억 3천만원임.

< TBS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30,547,029	23,217,308	7,329,721	31.6%

- 당초 TBS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요청한 금액은 90억 4천 6백만원이며, 시급성이 낮은 사업비를 일부 제외하고 요청액 대비 20% 삭감된 금액이 편성되었음.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인 465억원을 기준으로 자체수입과 출연금 편성 비율을 1:1로 정하여 232억 1천 1백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TBS가 편성한 자체수입은 88억 3천만원에 불과하였음.

- TBS는 2020년 2월 재단화된 이후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하면서 의존재원율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도 출연금이 감액됨에 따라 자체수입 또한 줄어 의존재원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연도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출연금 감소폭 대비 자체수입의 감소폭이 큰 편인데, 이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출연금이 감액된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어 제작비의 감소폭이 커지고 광고 등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TBS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안
TBS 총 예산	50,513	51,518	46,500	32,047	40,848
서울시출연금	38,813	37,518	32,000	23,217	30,547
TBS 자체수입	11,700	14,000	14,500	8,830	10,301
의존율	77%	73%	69%	72%	75%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출연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42억 7천 5백만원 ▶인건비 29억 3천 2백만원 ▶기본경비 1억 2천 3백만원 등으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자체수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6.7% 증가한 103억 1백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 TBS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세부내역 >

구 분	산 출 내 역
출연금	○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 7,329,721천원
	- 인건비(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퇴직급여 총당금 등) = 2,931,635천원
	- 운영비(여비, 교육훈련비 등) = 123,112천원
	- 사업비(TV 및 라디오 방송제작 등) = 4,274,974천원

- TBS의 환경적 여건은 출연금의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2024년 1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시행되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될 예정임.
- 또한 방송사로서 과거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현재까지도 각종 법정제재를 받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FM 방송의 상업광고 송출 여부에 대한 확인 민원까지 제기되어 향후 강도 높은 제재의 가능성 또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임.
- TBS가 FM과 eFM 방송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파사용을 허가 받은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특히 재허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점사항인 각종 법정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적절성

- 동의안으로 제출된 출연금은 73억원이며, 동의안과 추경안 모두 통과될 경우 최종 출연금은 305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대비 95.5% 수준이 되며, 자체수입을 포함한 TBS의 최종예산은 408억 4천 8백만원

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465억원 대비 87.8% 규모가 됨.

- 이번 추경안의 출연금에는 연차수당 2억 5천만원, 연장근무수당 8억 6천만원, 퇴직급여 총당금 18억 1천만원 등이 포함된 인건비 29억 3천 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현원과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으로 추경을 통해 예상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임.
- 특히 법정 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총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이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지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 TBS는 2023년도 출연금 감액 편성 이후 방송제작비, 정보화시스템 유지비용의 부족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콘텐츠 제작비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여 32억 9천만원(출연액 대비 44.9%)에 지나지 않아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임.
- 자체수입의 예상 증가액 역시 14억 7천만으로 제작비 투입 대비 44.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자주재원율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폐지조례 시행 이전 TBS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 제공의 측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TBS가 시민에게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됨.